

“영미~ 메달 기대해!”... 여자컬링 ‘팀킴’이 났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컬링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 ‘팀킴’ 선수들이 9일 오후 중국 베이징 국립 아쿠아틱 센터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캐나다와 1차전 ... 스켈레톤 윤성빈·정승기 첫 출전 남자피겨 차준환 프리스케이팅 쿼드러플 살코로 메달 도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국민에게 감동을 줬던 영웅들이 10일 출격한다.

당시 ‘영미’ 열풍을 일으켰던 컬링 경기가 시작되고 금메달을 따냈던 윤성빈(강원도청)이 스켈레톤에 도전한다. 한국 남자 피겨의 희망 차준환(21·고려대)도 메달에 도전한다.

‘영미’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대표팀 주장 김은정(강릉시청)이 팀의 리드 김영미(강릉시청)의 이름을 애타게 불러서 붙은 별칭이다.

평창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인 은메달을 획득한 우리나라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메달권 진입을 노린다.

10일 시작하는 여자 컬링에는 한국과 캐나다, 중국, 덴마크, 영국, 일본, 러시아올림픽위원회, 스위스, 스웨덴, 미국 등 10개 나라가 출전했다.

폴리그를 벌인 뒤 상위 4개국이 4강 토너먼트로 메달 주인공을 정한다. 한국은 10일 오후 9시 5분 중국 베이징의 국립 아쿠아틱 센터에서 캐나다와 컬링 여자부 1차전 경기를 치른다.

컬링에는 또다른 관전포인트도 있다.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 피터 갤런트(64·캐나다) 감독이 1차전에서 ‘예비 며느리’가 선수로 뛰는 캐나다와 만나는 것이다.

갤런트 감독의 국적이 캐나다인데도 캐나다 대표팀에는 갤런트 감독의 아들 브렛 갤런트(32)와 교제 중인 선수 조슬린 피터먼(29)이 선수로 뛰고 있다.

갤런트 감독으로서 자신이 가르친 한국 선수들과 ‘예비 며느리’의 맞대결에서 한국을 지휘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스켈레톤은 2018년 평창에서 윤성빈(강원도청)이 금메달을 따낸 종목이다.

윤성빈과 정승기(가톨릭관동대)가 출전하는 남자부는 10~11일에 열리고, 김은지(강원BS경기연맹)가 나서는 여자부는 11일과 12일에 진행된다.

윤성빈은 2021-2022시즌 월드컵에서 입상권에 들지 못해 이번 올림픽 전망이 밝은 편은 아니지만 4년 전 금메달 기억을 되살려 선전한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도 바라볼 만하다.

피겨 스케이팅 차준환은 쇼트프로그램 선전의 좋은 기운을 이어 내친김에 메달권 진입에 도전한다.

올림픽 관련 자료에 따르면, 그는 10일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경기장에서 열리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 2번 과제로 쿼드러플 토투프와 쿼드러플 살코 점프를 단독 점프 과제로 배치했다.

톱 5 진입의 열쇠는 프로그램 처음 시도하는 쿼드러플 점프 2개에 달했다. 쿼드러플 살코는 기본 배점 9.70점, 쿼드러플 토투프는 9.50점의 고난도 기술이다.

쿼드러플 살코 성공률은 매우 높다. 그는 지난 달에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선수권 대회에서 두 차례 쿼드러플 살코를 시도해 모두 클린 처리했고, 8일 열린 베이징올림픽 쇼트프로그램에서도 쿼드러플 살코에 성공했다.

반면 쿼드러플 토투프의 성공률은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차준환이 첫 점프 과제인 쿼드러플 토투프에 성공한다면, 기세를 이어가 최고의 연기를 펼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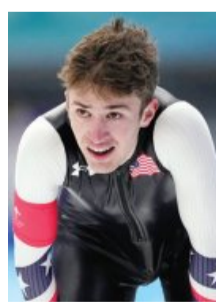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문 대통령 축전 받은 김민석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의 김민석(오른쪽)이 9일 오전 중국 베이징 선수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축전을 윤홍근 선수단장을 통해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빙속 선수, 코로나 검사 45번 받고 출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40번 넘게 받고, 경기 당일 오전에야 중국에 도착한 미국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가 있다.

케이스 도슨(22·미국·사진)은 베이징올림픽 출전을 3주 정도 앞둔 1월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가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하려면 이후 검사에서 네 번 연속 음성 이 나와야 한다.

도슨은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최근 3주 사이에 PCR 검사를 45번 받았다”며 “처음엔 2번 연속만 음성 나오면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24시간 간격을 두고 4번 연속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느라 6일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0m 경기에는 뛰지 못했다.

도슨은 결국 4회 연속 음성 판정을 받고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를 출발, 조지아주 애틀랜타와 프랑스 파리에서 한 번씩 비행기를 환승한 끝에 8일 오전 6시 50분에 베이징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날 저녁에 열린 남자 1,500m 경기에 출전했다.

경기 출전에도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는 환승 도중에 스케이트를 분실했다. 도슨은 “다행히 유니폼은 손가방에 하나 들어있었고, 스케이트는 라트비아 선수의 것을 빌릴 수 있었다”며 “올림픽에 출전하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쉽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기록은 1분 49초 45로 출전 선수 29명 중 28위였다.

/연합뉴스

‘스키 알파인 여왕’ 시프린, 노 골드 우려

미케일라 시프린(미국)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키 알파인 여자 회전 경기에서도 초반 실격했다.

시프린은 9일 중국 베이징 북부 연청의 국립 알파인스키센터에서 열린 대회 스키 여자 알파인 회전 경기 1차 시기에서 경기 시작 약 5초 만에 넘어졌다.

이로써 시프린은 7일 대회전 1차 시기 실격에 이어 이번 대회 출전한 두 차례 레이스에서 모두 실격당했다.

시프린은 2014년 소치올림픽 회전, 2018년 평창올림픽 대회전에서 우승한 선수다. 현역 선수 가운데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 알파인 최다 우승 기록(73승)을 보유한 선수로 이번 대회 다관왕이 예상됐지만 주 종목인 회전과 대회전을 모두 그르쳤다.

7일 대회전 1차 시기에서 경기 시작 약 10초 만에 중심을 잃어 기문을 놓치는 바람에 실격당한 시프린은 이날 회전은 약 5초 만에 레이스를 이탈했다. 시프린은 눈 위에 걸터앉아 고개를 숙인 채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시프린은 이번 대회 회전, 대회전, 활강, 슈퍼대회전, 복합 등 5개 세부 종목에 모두 출전할 예정이지만 주 종목은 회전과 대회전이다.

복합은 기술계와 속도계 종목을 한 번씩 뛰어 합한 성적으로 순위를 정한다. 시프린은 11일 속도계 종목인 슈퍼대회전에 출전할 예정이다.

시프린은 슈퍼대회전에서 2019년 세계선수권 우승을 차지했지만, 올림픽 슈퍼대회전에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반려견 모모가 하늘에서 활활 짓으며 응원했을 것”

한국 첫 동메달 ‘빙속’ 김민석 “4년 뒤엔 꼭 금메달 따겠다”

한국 선수단에 첫 메달을 안긴 ‘빙속 괴물’ 김민석(성남시청)은 담담하게 인터뷰를 하다 눈시울을 살짝 붉혔다.

지난해 10월 하늘나라에 간 반려견 모모를 떠올리며서다.

김민석은 8일 중국 베이징 국립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에서 1분44초24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차지한 뒤 “모모가 응원해줘서 동메달을 딴 것 같다”라며 “하늘에서 ‘활활’ 짓으면서 응원해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모는 김민석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키웠던 반려견이다.

14년 동안 김민석의 곁에 있던 모모는 가족과 다름없었다.

모모는 김민석이 첫 태극마크를 달았을 때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땀 때도 곁에 있었다.

김민석은 지난해 10월 모모와 헤어졌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열리기 4개월 전이다.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뒤 감정의 동요를 드러내지 않았던 김민석은 반려견에 관한 질문을 듣고 울컥했다.

모모의 응원을 받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힌 김민석은 4년 뒤엔 꼭 금메달을 따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